

노동자 교육을 둘러싼 지식의 절합과 계몽의 정치성

-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고찰 -

조 윤 정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 노동자의 양의성과 보통지식의 이상성

1905년을 전후로 조선에는 공립과 사립학교뿐 아니라 야학이 급증한다. 1890년대부터 이미 조선에는 근대적 공장들이 출현하고 일본 자본이 생산에 투자되면서 근대적 노동자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¹⁾ 이 과정에서 농민집단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임노동자가 출현한다. 조선의 농민들은 현물이 아닌 돈으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시작했으며, 광산과 철도사업, 조선 내 회사의 증가 추세 속에서 다양한 직업군으로 분화되어 간다. 유길준이 노동야학을 염두에 두고 『노동야학독본』(1908)을 간행한 것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1) 강만길 외(2004), 『한국노동운동사』 1, 지식마당, 10쪽.

주제어: 『노동야학독본』, 유길준, 노동(자), 지식, 지식인, 노동야학회, 보통지식, 계몽, 양의성
Nodongyabakdokbon(『勞動夜學讀本』), Yu Giljun, labor(er), intellectual, textbook, meeting of labor night school, common knowledge, enlightenment, double meaning

1908년 발간된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은 보통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위해 간행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1909년 1월 26일 『황성신문』 광고는 이 독본이 노동자의 덕성 함양과 지식의 계발을 목적으로 간행되었을 뿐 아니라, 보통지식을 가진 동포도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국가의 근본 되는 노동제군의 덕성을 함양하고 지식을 계발하기 위해 간명 격절히 저술한 바 오직 노동제군만 교육할 뿐 아니라 보통학식이 넉넉한 동포도 노소를 물론하고 읽기에 갖추어졌다 할 만 하오니 모든 분들은 빨리 구매하십시오.²⁾

신문 광고가 매체를 이용해 독자에게 책의 소비를 유도하는 의도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광고가 주요 독자층을 노동자에서 동포의 영역으로 확대시켰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서문이 없는 이 독본에 대한 광고는 저자가 생각했던 독본의 주요 독자가 노동자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독본의 내용이 보통지식을 가진 동포가 읽어도 될 만큼의 수준을 갖췄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광고의 내용은 역으로 교육적 이력이 없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야학의 교재인 이 독본이 초급자를 대상으로 한 (어학)교재의 수준을 넘어선 내용을 담고 있음을 방증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노동야학독본』은 유길준이 이상으로 삼았던 모든 국민의 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 시작점에 놓인 작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광고와 독본의 내용에서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국가의 근본’으로서 조선 동포 전체를 포섭하는 노동자와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제된 계급’으로서의 노동자의 의미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야학독본』은

2) 「노동야학」, 『황성신문』, 1909. 1. 26.

“國家의 根本의 되는 勞動諸君의 德性을 涵養하고 知識을 啓發하기 爲하야 簡明 擊切히 著述하온 바 但히 勞動諸君만 教育할 뿐 아니라 普通學識이 優裕한 同胞도 老少를 勿論하고 淸覽에 可供할만 하오니 兪彦은速購하시옵.”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노동(자)의 개념과 윤리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의 양의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자료이다. 독본의 기저에 깔린 노동자의 양의성이야말로 독본을 통해 계몽할 대상과 내용을 결정짓는 동시에, 독본을 발간했던 지식인이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 당대 노동자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내포한다.

지금까지 『노동야학독본』에 대한 연구는 첫째, 야학의 교재로 간행된 이 독본을 통해 구한 말 야학과 유길준의 독본 간행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 대한 연구³⁾, 둘째, 교과서적 특성에 대한 분석과 지식 체계가 갖는 시대적 성격에 대한 연구⁴⁾, 셋째, 독본이 가진 담론상의 특징에 대해 언급한 연구⁵⁾로 집약된다. 첫째 연구는 야학이 성행했던 구한말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교육활동에 가담했던 유길준의 이력에 비추어 『노동야학독본』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 한계를 유길준의 정치적 이념이나 이력 속에서 해명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이 논의가 저자의 사상을 중심에 두고 진행되어 독본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일부분을 부각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 데 반해, 두 번째의 선행 연구는 근대 초기 교과서의 내용과 구성방식

- 3) 이훈상(1994), 「구한말 노동야학의 성행과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 『두계 이병도 박사 구순기념논총』, 지식산업사.
 윤병희(1998), 『유길준연구』, 국학자료원.
 양재만(2000), 「대한제국기 유길준의 국가관과 교육방침」,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박봉배(1987), 『한국국어교육전사』 상(上.)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구자황(2004), 「독본을 통해 본 근대적 텍스트의 형성과 변화」, 『상허학보』 13, 상허학회.
 배수찬(2006), 「노동야학독본」의 시대적 성격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 5) 김중진(2004), 「개화기 이후 독본 교과서에 나타난 노동 담론의 변모 양상」, 『한국어문학연구』 4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박주원(2006), 「1900년대 초반 단행본과 교과서 텍스트에 나타난 사회 담론의 특성」,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김현주(2008), 「‘노동(자)’, 그 해석과 배치의 역사」,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 깊은샘.

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으로써 노동자 교육의 양상과 그 이념 및 가치를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세 번째의 논의는 독본의 내용을 당대 중심 담론과의 연계 속에서 고찰함으로써 근대 초기 노동 개념의 해석과 교육이 지향한 이념적 성격을 살피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모두 매체가 기반하고 있는 교육열과 국가 이데올로기를 언급하는데, 이는 근대 조선의 지식으로서 노동 개념의 형성과 교육의 문제를 살피는 데 중요한 사상적 기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행 연구는 역으로 민족이나 국가 중심의 사상에 근거해 번역되고 유통된 노동(자)의 의미와 지식체계가 텍스트 내부와 외부에서 벗어난 균열의 지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우리가 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단일한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대립하는 양극 사이를 오가는 변증법적 진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개화기 노동자에게 부여된 산업인력으로서의 중요성과 계급적 소외의 현상은 노동자의 정치적 위치와 통한다. 한편에는 총체적이고 일체화된 정치체로서의 노동자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가난하고 배제된 자들의 부분적이고 파편화된 다수로서의 노동자가 있다. 또한, 한편에는 나머지라곤 없는 듯이 보이는 포괄적 개념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배제적 개념이 있다. 한 쪽 극에는 주권과 일체화된 시민들의 완전한 국가가 있고, 다른 쪽 극에는 비참한 자, 억압받는 자, 정복당한 자로 구성된 금지영역이 있다.⁶⁾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노동자라는 용어가 지시하는 단 하나의 압축적인 대상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노동자는 두 극단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이중의 운동 속에 놓인 개념이다. 이 말은 곧 노동자가 하나의 정치체로 구성되려면 근본적인 분열을 거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6) Giorgio Agamben(2009), 김상운·양창렬 역, 『목적 없는 수단』, 난장, 40쪽.

노동자의 양의성에 대한 관점은 근대 유럽에서 ‘인민’(popolo)이라는 용어의 정치적 의미에 관한 아감벤의 논의를 참고했다.

『노동야학독본』에서 노동자라는 용어는 구성상의 정치적 주체를 가리키는 동시에, 사실상 정치로부터 배제된 계급을 가리킨다. 이런 양의성 속에서 만들어진 독본은 지식인인 유길준이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한 것인 동시에 개화기 조선에서 야학이 갖는 특성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노동자와 야학이 갖는 양의성이 공존한다. 유길준은 이 책을 통해 ‘보통지식’의 보급을 열망했다. ‘노동’과 ‘야학’이라는 표제어 속에는 ‘국민’이나 ‘보통’, ‘초등’과 같은 ‘국민적 교과과정’으로 향해 가는 경향이 잠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신지식에 대한 열망을 가진 노동자들에 의한 야학 개설의 열기와 산업인력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 책이 발간되었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독본 편찬자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과정의 수준을 참조하되, 충실한 노동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 텍스트는 상식 수준의 지식과 국민으로서의 윤리적 덕목을 내용으로 삼은 저학년의 수신교과서나 국어 교과서의 성격을 갖기 쉽다.⁷⁾ 노동야학을 염두에 쓰고 간행된 이 책의 내용적 특성과 한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야학독본』의 특성은 동시대 간행된 야학 관련 도서와의 비교 고찰을 통해서 구명될 수 있다. 특히, 남궁억이 노동야학을 염두에 두고 통신강의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던 잡지 『교육월보』(教育月報, 조선과 달리 야학이 정규교육기관으로 기능했던 일본에서 간행된 『야학독본』(夜學讀本)(호리에 히데오(堀江秀雄), 1905)⁸⁾과 일본의 야학 교과서로 편찬된 『일본청년독본』(日本青年讀本), 『청년야학

7) 선행 연구자들이 특정 과목명을 내세우지 않은 『노동야학독본』을 수신 교과서로 분류하거나(윤명희, 71쪽; 이훈상, 752쪽), 국어학습용·어문교육용 교과서로 분류하여(박봉배, 141쪽; 배수찬, 601쪽) 분석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같은 자료의 특성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8) 호리에 히데오의 『야학독본』은 1903년 초판 발행되었으며, 필자가 확인한 자료는 1905년 간행된 것임을 밝혀 둔다.

독본』(青年夜學讀本(正篇終))(고다니 시게루(小谷重), 1908, 1911)⁹⁾을 그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호리에 히데오의 『야학독본』은 야학의 교과서라기보다 야학을 설립하려는 노동자와 지식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안내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 책은 야학의 개설부터 활동과 내용, 영향에 이르기까지 야학 자체에 대한 분석적 지식을 담고 있어 야학에 대한 이해와 야학의 지속적인 창출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고다니 시게루의 『청년야학독본』은 개인의 활동 및 권리부터 은행과 회사에 대한 지식, 신문잡보, 농촌자치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에게 필요한 실용적 지식을 담고 있어 책 자체는 충량한 신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삼되, 청년 노동자에게는 생활과 밀접한 상식과 전망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처음 간행된 1877년부터 1912년까지 70판의 재판을 찍은 것으로 보아 그 인기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논문은 1908년 조선에서 간행된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의 내용과 체계의 특이성을 살피되, 동시대 간행된 야학 교과서와의 비교 고찰을 병행하고자 한다. 교과과정의 정치학은 그것이 제도권 내에 있다는 점에 있다.¹⁰⁾ 그러나 조선의 노동자와 야학은 제도권 내부에 놓여 있되 외부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유길준은 포괄적 개념과 배제적

9) 고다니 시게루는 지리 역사, 수산 서간 등 교육용 도서 발간에 주력했던 지식인이다. 그는 일본 청년 교육을 위한 청년야학독본으로 『일본청년독본』(日本青年讀本(正編))(金港堂, 1908)을 편찬하며, 이 책은 제1장 청년과 학문(青年と學門)에서 제60장 수신이십칙(修身二十則)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비료, 회사, 병역 등 노동하는 청년이 갖추어야 할 상식을 다룬다. 그는 청년 야학 교육을 위한 교재를 지속적으로 간행하며, ‘청년야학독본’이라는 제목으로 독본을 편찬하는 과정에서도 내용상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는 1911년 간행된 『청년야학독본』(青年夜學讀本)의 내용과 1912년에 간행된 동일 제명의 도서의 내용이 차이를 보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1911년 독본에는 1912년 간행된 독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朝鮮)’이라는 말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1910년 한일병합의 상황과 『조선지리역사』(朝鮮地理歷史(補習用))을 간행했던 이력과도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10) David Huddart(2011), 조만성 역, 『호미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엘피, 219쪽.

개념의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균열을 메우기 위해 후자의 계몽이라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러한 방식은 공부하는 노동자상을 만들어낸 동시에, 노동자를 호명하고 그들을 계몽하는 과정에서 부각되는 지식인상을 창출했다. 이는 노동자 계몽의 논리에 내재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과 모순을 드러낸다. 이 논문은 『노동야학독본』의 분석을 통해 개화기 노동자에 대한 계몽의 논리와 그에 내재한 분열의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독본의 정치·문화적 위상과 한계를 밝힐 것이다.

2. 『노동야학독본』의 편찬 배경과 노동자 계몽의 논리

유길준의 교과서 편찬사업은 1907년 설립된 흥사단(興土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산 안창호의 흥사단은 기실 김윤식, 유길준 등이 창립한 흥사단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유길준은 근대적 시민을 육성하는 데 있어 그 모델을 전통의 ‘선비’에서 발견하였다. 여기에서 선비(士)는 전통적인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질서에 있는 ‘사’가 아니라 근대적 지식과 도덕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¹¹⁾ 흥사단은 ‘국민 모두를 선비로 만든다’로 실천 목표를 정하는데, 이는 교육으로 ‘선비’를 창출하여, 새롭게 형성된 ‘선비’가 전국에 사풍(士風)을 일으키고 국가의 제반 산업을 담당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 일반 국민에게 교육을 보급할 목적으로 조직된 흥사단은 흥사단 규칙 제3조 1항으로 교과서 편찬 사업을 들고 있다.¹³⁾ 유길준은 흥사단에서 부단장을 역임하며, 국어독본과 수신 교과서를 편집한다.¹⁴⁾ 흥사단에서는 교과서

11)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 편, 『유길준전서』 II, 일조각, 1971, 364쪽.

12) 위의 책, 367쪽.

13) 위의 책, 371쪽.

14) 「유씨열심」(俞氏熱心), 『황성신문』, 1907. 12. 28.

편찬사업을 위해 1908년 동문관(同文館)이라는 인쇄소를 설치한다. 이 인쇄소에서는 1909년 흥사단편집부의 『초등본국지리』(初等本國地理), 『초등본국역사』(初等本國略史)와 같은 소학교용 지리·역사 교과서와 유길준의 동생인 유성준이 저술한 『신찬 소박물학』(新撰 小博物學), 유길준이 저술한 『대한문전』(大韓文典) 등이 간행된다.

그러나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은 일본인 경영의 경성일보사에서 간행되는데, 동문관에서 본격적으로 도서가 간행된 것이 1909년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1908년 7월 유길준의 독본을 출판하기에는 동문관의 사정이 아직 여의치 않았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경성일보사의 출판기획과 유길준의 교육사업의 방향이 통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경성일보》는 1906년 9월 1일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지시에 따라 통감부 기관지로 창간된 신문이다. 당시 경성일보사에서는 통감부의 『한국사정요람』(韓國事情要覽)(1907)과 주정균의 『법학통론』(法學通論)(1908)이 발행된 상태였다. 전자는 통감부가 조선의 관제, 세입·세출, 일본인의 무역, 산업기관 등을 조사하고, 일본 거류민단의 상황을 파악한 자료이며, 후자는 조선사회에서 개인·사회·국가, 법률 및 권리의무, 계약 등의 개념을 수용하고 각인하는 단계에서 출판된 도서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야학독본』은 조선의 노동자에게 보통교육을 베풀어 노동자의 의식을 개화하기 위한 유길준의 계몽열과 조선민중을 상대로 한 도서 간행을 통제하고 산업인력인 노동자를 각성시키려는 통감부의 정치적 욕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야학독본』의 첫 장에는 한편의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 삽화에는 노동야학회 고문 유길준과 노동자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담겨 있다.



『노동야학독본』에 수록된 삽화



『夜學讀本』의 표지

노동야학회는 교육사업을 하던 한영규(韓榮奎), 김태유(金泰裕) 두 사람이 정부 및 사회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중등 이상의 교육과 달리, 하등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애석하게 생각하여 설립한 것이다. 그리고 흥사단 활동을 하던 유길준은 이 단체의 고문 역할을 한다. 노동야학회의 취지를 밝힌 『황성신문』의 기사에서는 노동을 “심로”(心勞)와 “역로”(力勞)로 이분하고, 전자를 ‘상등인의 노동’(上等人之勞動), 후자를 ‘하등인의 노동’(下等人之勞動)이라 언급한다. 여기에 ‘상하가 비록 다르지만 노동은 하나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요순(堯舜)과 공맹(孔孟)의 주장을 환기한다. 실제로 『노동야학독본』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사유는 유길준이 독자에게 제시하는 이념이나 주장의 근본이 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흥사단의 활동 목표가 전통적 사유체계의 근대적 변용을 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의 내용에서 주목해볼 것은, 노동야학회가 가진 것이 없어 문필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사

정을 돌아보고 ‘슬퍼하여’ 뜻있는 자들이 모여 모임을 만들었으며, 이는 ‘상등노동인의 노력’ 속에서 비롯한 것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무릇 노동자는 본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부모를 모시고 처자식을 거느리기 어려운 자 모두 취업하니 어찌 여유롭게 문필을 즐기랴. 그 사정을 돌아보고 슬퍼하노라. 이제 좋은 일에 뜻을 둔 사람들이 한 모임으로 규합하여 이름 부르길 노동야학회라 하니 이 또한 상등노동인(上等勞動人)의 두터운 심력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다. 오직 원컨대 우리 노동제군은 속히 나아가고 또 나아가 낮에 노동하고 밤에 학교에 가며 매우 부지런하고 꾸준히 하여 곁에 드러난 이름과 그 실상을 가르기를 바란다.¹⁵⁾

그러므로 노동야학회는 교육사업을 하는 지식인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자처하며 만든 조직이며, 상하의 구별 속에서 하등 노동자에 대한 연민과 동정, 조선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그 기원에 두고 있다. 노동야학회는 노동이 하나라는 통합과 동일화의 논리를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하의 간극이나 구별짓기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계몽이 추구하는 바와 관련된다. 계몽은 통일된 체계를 꿈꾸기에 구성요소들은 체계 속에서 적당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며, 각각의 요소들은 체계와 유용한 기능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¹⁶⁾ 계몽의 전개과정은 “유용성의 척도에 들어맞지 않은 것”¹⁷⁾을 제거하는 과정과 동궐에 놓인다. 유길준

15) 「노동야학회」, 『황성신문』, 1908. 3. 19.

“凡於勞動者初에 赤手無資호야 艱於奉率者學皆就業則何暇遊於翰墨乎아 顧其情則憾矣라 今有志君子糾合一會호야 名曰勞當動夜學會라호니 是亦上等勞動人之 多費心力中所出者也라 惟願我勞動諸君은 急進又進호야 晝出勞動호고 夜入學校호며 勤勤孜孜호야 以副名實이 是所願望哉.”

16) 노명우(2005), 『계몽의 변증법』, 살림, 120쪽.

17) Theodor W. Adorno & Max Horkheimer(2001),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 지성사, 25쪽.

을 포함한 노동야학회의 중심인물들은 조선민족 모두를 노동자로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계몽을 도모하지만, 민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군상들을 교육이라는 행위에 적합하게 배치하고자 상하등의 구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삽화 속에서 교육적 시혜자로서의 유길준이 ‘나라 위해 일할 것’과 ‘배워야 함’을 말하고, 노동자는 그의 말에 사의를 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양복을 차려입는 유길준과 한복에 갸신했을 신은 노동자 사이의 거리감은 이 책의 저자와 독자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와 거리감을 함축한다. 또한, 유길준에 비해 왜소한 노동자의 모습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악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의 노동자라는 범주 속에서 융화된 지식인과 노동자와의 관계가 부각되기보다 ‘노동야학회 고문’ 유길준이 두드러지는 효과를 낳는다. 유길준의 말에 대한 노동자의 ‘고맙소’라는 대답은 기실 노동자의 것이 아니라 유길준의 언어, 즉 유길준이 노동자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개화기의 시대상황 속에서 국민으로서 노동자를 호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를 호명하는 지식인의 자의식이 과잉된 양상을 보인다.

모든 국민이 노동자라는 논리에 존재하는 지식인의 시혜적이고 희생적인 의식은 남궁억의 『교육월보』나 일본의 야학독본의 논리와 비교해 볼 때 명징해진다. 이 야학교재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국민의 ‘학자’(學者) 되기를 지향한다. 그것은 조선이나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향학열을 전제한다. 남궁억과 호리에 히데오, 고다니 시게루는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노동자의 학습을 자극하고, 그것을 집단화한다. 유길준, 남궁억, 호리에 히데오, 고다니 시게루의 야학 교재가 가진 계몽의 논리는 ‘인민을 향하는 동시에 인민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노동운동 특유의 아포리아’¹⁸⁾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방법론상으로 남궁억이나 일본 지식

18) Giorgio Agamben, *op.cit.*, pp. 42-43.

인의 야학독본이 노동자를 동일성의 순수한 원천이며 상황에 따라 스스로를 재규정하고 정화시켜야만 하는 대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면, 유길준의 야학독본은 노동자를 본질적으로 결핍된 대상으로 보고, 그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대립 관계에 놓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부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일본 지식인 호리에 히데오에 의해 저술된 『야학독본』의 표지에 실린 그림을 보면, 『노동야학독본』에 나타난 노동자의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1902년 『국자개량논찬』(國字改良論纂)을 편찬하고 1907년 『언문일치문범』(言文一致文範)을 간행한 호리에 히데오는 1909년 『대한문전』을 통해 언문일치를 강조했던 유길준의 지적 이력과 공유하는 바가 많은 지식인이다. 그는 ‘세상의 잠자고 있는 무리를 각성시킬 책략에 대한 생각’을 모아 이 독본을 썼다고 말하며, 자서(自序)에서 이 책이 한 지방의 ‘미풍’이 되고, 그것이 ‘전국’에 이르고 ‘천하’를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서술한다.¹⁹⁾ 그는 산간벽지의 책을 든 세 명의 소년이 야학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시작된 모임이 조직이 되고, 규칙을 정하고, 사업을 일으키는 과정을 독본에 자세히 소개한다. 그리고 이렇게 조직된 야학회가 마을과 회사 내에서 다시 확장과 변식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제시한다.

『야학독본』의 표지는 저자가 생각하는 야학회의 조직 및 기본 정신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네 명의 청년이 등불 아래 모여앉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유길준에게 당부의 말을 듣는 삽화 속 노동자의 개인성과는 대조적이다. 호리에의 독본은 낮에 일하는 노동자와 가난한 집의 소년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망으로 모이고, 그 모임을 확장해나가는 원리에 의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명 중 누가 가르치는 주체인지, 배움을 얻는 대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동일하게 학문의 장려를 목적으로

19) 堀江秀雄(1905), 『夜學讀本』, 博文館, 3쪽.

로 삼고 있지만, 유길준의 독본은 ‘상등노동자인 지식인에 의해 조직되고, 호명되고, 교육받는’ 노동자를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이전에 지식인의 입장에서 구성되고 서술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개화기 조선의 사회적 주체로 급부상한 노동자는 바로 이러한 지식 체계와 관계망 속에서 자기를 인지하고, 자신의 노동을 나라와 연결시켜 사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유길준의 교육론, 전통사상을 통해 전유한 사회진화론

노동야학은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교육장이다. 노동자들은 이 속에서 인간과 노동, 집단, 더 넓게는 사회, 국가라는 범주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 그 교육과정 속에서 독본은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한다.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은 총 50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유길준은 1-13과에 걸쳐 인간의 조건과 도리, 환경에 대해 언급하고, 14-30과에 걸쳐 근대사회의 물질적 조건과 노동의 의의 및 노동의 종류와 특징 등에 대해 설명하며, 31-50과에 걸쳐 국민이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에 대해 역설한다. 이 속에서 유길준은 비유, 분류, 비교, 대조, 예시의 방식을 통해 노동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노동(자)의 개념을 각인한다.

14-50과에 저자의 의도가 집약되어 있으며, 주요 독자를 노동자로 상정한 점에 입각해볼 때 14-30과에 독본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유길준은 노동이 국가 및 사회의 근본이며 부강, 문명의 원천이라 하여 노동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산업의 발달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유길준은 노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버리고 대중이 노

동의 의의와 노동자의 존재 가치를 깨닫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노동자가 신지식(사상)을 습득함으로써 국민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독본에 따르면 노동은 ‘국가를 건립하는 것’, ‘사회를 건립하는 것’인 동시에 ‘세계를 움직이는 것’으로 확대된다. 유길준은 나라나 법을 의인화하는데,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독자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다. 나라는 “백성의 직업”을 “목숨”으로 삼는다는 표현이나, “나의 몸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되 만일 죄를 범하면 법이 가져간다”와 같은 표현이 그러하다. 이때, 개인의 일은 나라의 일이 되며, 애국심은 성실, 의무, 도덕심, 근검절약, 건전한 경쟁과 같은 일상적 가치들과 연결된다. 설명의 과정에서 노동은 과거의 개념으로부터 그 범주를 확대하고 구체화하게 되며, 노동자는 개인을 넘어 ‘사회-국가-세계’의 지형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획득하게 된다. 이처럼 『노동야학독본』에는 국가 담론 속에서 노동자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독자에게 이양되는 과정이 담겨있다.

유길준은 노동을 둘러싼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되, 기존의 조선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판하는 자리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는 귀천, 근면과 나태 등의 대립항 속에서 서사를 이끌어가며, 조선의 노동자가 기존의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양상은 유길준이 일제의 보호국화를 사회진화론적 시각에서 인정하여 적대 주체를 자신에게서 찾는 논리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당시 실력양성론을 주창했던 애국계몽운동의 논리이기도 하다. 애국계몽운동의 역사인식은 문명지상주의로, 정치적 불행은 문화적 열등의 소치로 돌리는 경향을 보였다.²⁰⁾ 이와 같은 경향 속에서 유길준은 조선 노동자의 반성과 문명화를 강조한다.

유길준은 노동자에 대한 서술에 앞서 ‘사람’, ‘나’와 관련한 주제로 논

20) 정용화(2004),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 한국』, 문학과 지성사, 109쪽.

의를 시작하는데, 이는 노동자가 노동자이기에 앞서 인격을 가진 사람임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유길준은 “사람의 자격은 사람 노릇하는 지식(知識)이 잇신 연후(然後)에 비로소 가초나니 사람이 사람의 형상(形狀)을 가초아시나 사람의 디식을 가초지 아니하면 차(此)는 사람의 자격이 업심”²¹⁾이라고 말함으로써 ‘동물과 분별된 존재’가 되기 위해 무지한 노동자는 배워야 함을 당부한다. 그리고 지식의 습득이 집과 나라, 사회를 이롭게 하는 방식임을 언급한다. 1-13과의 경우, ‘사람’이나 ‘나’를 ‘국민’, ‘노동자’로 치환하여도 내용상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 이는 저자가 국가라는 체계 속에서 노동자의 사회적 위치, 권리 및 의무를 문제 삼기 때문이다.

유길준은 근대 조선에 생겨난 직업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그 직업을 크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리고 육체노동을 다시 “정업”(定業)과 “잡업”(雜業)으로 나누고 그것을 농공상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그는 그 중에서도 잡업, 즉 뜬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가난과 불안, 무지를 언급하며 ‘가련하다’고 말한다. 앞서 노동야학회의 취지를 알리는 신문기사에서 살펴봤던 ‘슬퍼하다’와 같은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층 노동자에 대한 감정적 표현은 노동자에 대한 지식인의 동정적 시선이 투영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야학독본』은 개화기 조선에 형성되어 있던 노동의 분야와 형태를 알려주는 동시에, 노동자를 둘러싼 감정의 기원들을 접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것은 개화기의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와 지식인의 상대적 시선이 굴절되어 반영된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지식인의 감정은 노동자의 각성을 유도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감정으로 조장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직업이 천만가지로 나뉘었으나 그 실상은 두 길에 지나지 아니하

21) 유길준(1908), 『인의 자격』(人的資格), 『노동야학독본』, 경성일보사, 6쪽.

니 이르되

1. 마음을 수고하는 자이니 곧 심지(心智)로 일하는 사람
2. 힘을 수고하는 자이니 곧 근력으로 일하는 사람

금무늬 찬란한 예복을 몸에 두르고 정부에 앉았다고 자랑하지 말
아라. 사람의 직업이다. 해진 옷에 지게 지었다고 부끄러워 말아라.
또한 사람의 직업이다.²²⁾

위의 내용은 「사람의 직업」이라는 장의 내용으로, 『맹자』의 ‘등문공상’(滕文公上)편에 근거한 것이다. 유길준은 모든 사람에게는 직업이 있고, 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구조를 ‘천하에 통용되는 의’(天下之通義)로 언급했던 맹자와 달리, 그는 ‘자랑’과 ‘부끄러움’에 대한 금지와 부정을 덧붙임으로써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비판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는 「노동의 거룩한 일」(勞動의 巨祿한 事)에서 “나진 일이라고 실패마오 버리헛기에는 귀천(貴賤)이업나니다”²³⁾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도 반복된다. 독본에서는 조선의 모든 사람이 노동자라는 논리와 함께 근력으로 일하는 육체노동자에 대한 구분과 교화의 논리가 공존한다. 이때, 육체노동자는 가난과 수치라는 수식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유길준의 언어는 노동자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고 노동의 중요성을 부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신노동의 우월함과 육체노동의 열등함을 부각하는 결과를 초래

22) 「사람의 직업」(人的 職業), 위의 책, 8쪽.

직업이 천만 가지로 나뉘는 실상은 두 길에 나뉘어 지니니 거대
"職業이 千萬 가지로 分히 나뉘는 實狀은 二路에 出지 아니하니 巨대"

一 心을 수고하는 자이니 곧 심지(心智)로 일하는 사람
一 心을 수고하는 者이니 故 心智로 事하는 사람

二 力을 수고하는 자이니 곧 근력으로 일하는 사람
二 力을 수고하는 者이니 故 筋力으로 事하는 사람

금강찬란한 예복을 몸에 두르고 정부에 앉았다고 자랑하지 말지 어다 사람의 직업이니
金章燦爛한 禮服을 身에 두르고 정부에 앉았다고 자랑하지 말지 어다 사람 의 직업 이니
라해진 옷에 지게 지었다고 부끄러워 말지 어다 호는 사람의 직업이니라."

23) 「노동의 거룩한 일」(勞動의 巨祿한 事), 위의 책, 36쪽.

한다. 이는 유길준이 독본을 통해 부자의 오만과 빈자의 수치를 비판하지만, 노동자의 문명화 노력이 개인과 국가의 부(富)로 연결된다는 논리로 계몽을 시도함으로써 모순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근대사회에서 빈곤과 무지에 근거한 배제는 경제적·사회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범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의 독본 발간은 배제된 자들인 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근본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분할하던 분열을 메워보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개화기에는 발전에 대한 강박관념이 무척이나 큰 위력을 발휘했는데, 그 이유는 발전이 균열이 없는 하나의 국민을 창출하려는 정치적 계획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노동야학독본』에서 「노동의 거룩한 일」(勞働의 巨祿한 事), 「용기」, 「단합」, 「분발」, 「경쟁」, 「경쟁연설」 등과 같은 장은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보여준다. 이 장들은 우승열패가 지배하는 시대에 노동자의 자각이 부국강병, 자주독립을 도모하는 근본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서양의 경우를 예시로 삼아 서술된다.

거룩하도다 노동이여. 국가의 근본이 이에 있으며 사회의 근본이 이에 있으니 부강하고자 하는가. 노동을 잘해야 되고 문명하려 해도 노동을 잘해야 된다.

그러한 까닭에 노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없고 사회도 없으니 사람 세상의 개화하는 분수는 노동하는 사람의 일하는 힘과 맞선다. 영국이 가멸다 하는가 독일이 굳세다 하는가 미국이 열렸다 하는가 프랑스가 좋다 하는가. 노동하는 사람이 그 나라와 그 사회를 만들어 아니했으면 그리되지 못하니 우리나라 동포님들 저 사람의 노동을 보소. 우리도 잘 하면 그리되고도 남을 것이다. (중략) 노동이라 하는 말은 수고로이 움직인다 함이니 이로 보건대 노동하는 그 사람이 저의 몸을 움직임이나 그 힘이 실상은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다. 거룩하도다 노동이여.²⁴⁾

24) 「노동의 거룩한 일」(勞働의 巨祿한 事), 위의 책, 35-36쪽.

경쟁하는 일이 없으면 사람의 세상이 다시 야만시대가 되니 세계의 진보는 경쟁에 있다. 생각하여 볼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능히 세계와 더불어 다투는가.²⁵⁾

유길준은 노동의 힘을 사회-국가-세계로 확장하고, 노동자의 개화가 국가의 세계적 경쟁력을 획득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경쟁의 논리를 세계로 확장하고, ‘천하 만국사람’을 경쟁자로 상대화하여 조선인의 “일심단체”(一心團體)²⁶⁾ 될 것을 주장한다.

유길준이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모스(Edward Sylvester Morse), 프랜시스 웨일랜드(Francis Wayland) 등을 통해 사회진화론을 접했으며, 그것이 『서유견문』에 반영된 사실은 언급된 바 있다.²⁷⁾ 그러나 그가 접한 사회진화론이 교육사상을 통해 어떻게 조선적으로 변용되었는지를 고찰

“國家^{국가}의근본이^이此에잇시며社會^{사회}의근본이^이此에잇나니富強^{부강}코져^하는가로^로동을^을잘^하여야되고文明^{문명} 하^하야도^도동을^을잘^하여야되나니라
 그러^하고^로로^로동^동하는^{사람}이^업시면^{나라}라도^업곳^{사회}도^업나니^{사람}세^상의^개화^하는^분슈^노로^로동^동하는^{사람}의^일하는^힘과^맞서^나니라
 英國^{영국}이^감여^다하는^가德國^{독국}이^긋세^다하는^가米國^{미국}이^열넛^다하는^가法國^{법국}이^도타^하는^가로^로동^동하는^{사람}이^그나^라와^그사^회를^만드^지아^니하^야시^면그^리되^지못^하나니^우리^나라
 同胞^{동포}님^네데^러사^람의^로동^을보^소우^리도^잘하^며는^그리^되고^도남^나니라 (중략) 勞動^{노동}이라^하는^말삼^은수^고로^히움^작인^다함^이니^此로^보건^대로^로동^동하는^그사^람이^더의^몸을^움작^임이나^그힘^이실^상은^세계^를움^작이나^{니라}
 巨祿^{거록} 하^도다^勞動^{노동}이^여.”

25) 『경쟁』, 위의 책, 84쪽.

“競爭^{경쟁} 하^는일^이업^시면^사람^의세^상이^다시野蠻^{야만시대}時^代되^나니世界^{세계}의^進步^{진보}는^競爭^{경쟁}에^잇나
 나라^생각^하야^볼지^어다^이제^우리^나라^사람^이能^히世界^{세계}로^더브^리다^토는^가.”

26) 『경쟁연설』, 위의 책, 85쪽.

27) 이은송(2008), 『유길준의 『서유견문』의 교육론 구상 전사(前史)』, 『교육사연구』 18권 2호, 한국교육사학회.

하는 일은, 망명 이후 조선에 돌아온 그가 ‘교육사업’에 투신한 근거를 드러내는 데 일조할 것이다. 사회진화론은 사회의 조화적·점진적 발전을 주장하고 자본주의사회의 존속을 정당화하며, 혁명운동을 사회 존속에 대한 파괴활동으로 본다. 동시에 생존경쟁·자유경쟁에 의한 사회 발전을 주장하고, 사회에서 자본가의 지배적 지위를 적자생존의 결과로 본다. 이 때문에 유길준은 원론적인 내용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고귀한 것으로 언급하지만, 『노동연설4』, 『노동연설5』처럼 현실적인 맥락에서는 힘써 벗어나야 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독본의 내용은 애국이나 개화의 차원에서 노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지만, 노동자는 ‘무식한 사람’의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 배움을 가져야 한다는 귀결을 보인다. ‘사람의 자격은 지식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는 논리나, ‘노동하는 일은 빈천한 자의 일이다’라는 논리는 그와 관련된다. 의병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나²⁸⁾, 귀천과 상하의 질서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의 도리²⁹⁾라고 말하며 노동자의 직분을 강조하는 논리 역시 노동자를 다시금 사회적 하층민으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유길준이 『서유견문』에서 프랑스 혁명에 가담한 사람들을 “잔악무도한 폭도”(殘惡無道한 暴徒³⁰⁾)로 지칭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노동자의 정치 참여, 사회변혁을 위한 혁명적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노동자의 정치참여를 부정하는 시각은 유길준이 부르주아 중심의 근대 사회를 구상해왔다는 것과 관련된다. 유길준에게 있어서 노동자가 애국하는 방법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직분에 맞게 일을 함

28) “나라의위태흐재에義兵이라假稱호고盜의事을행함은의도아니며용맹도아니니라.” 유길준, 『용기』, 앞의 책, 75쪽.

29) “貴^귀호자가잇신즉賤^천호자도잇심이며富^{강연자}호가잇심으로貧^{간난}호자도잇심이라이같은社會^{사회}의平等^{평등}치아니흠이니또한사람살기에自然^{자연}호道理^{도리}니라.” 『질서』, 위의 책, 80쪽.

30)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 편(1971), 『유길준전서』I, 일조각, 134쪽.

으로써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부세 바치는 일, 병정 되는 일, 자녀 가르치는 일’을 의무로 갖는다. 그에게 있어서 노동자는 통치되고 교화되는 대상이며, 사회개혁의 주체로는 서기 힘든 ‘대상’으로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노동야학독본』에는 전통적 관념으로서의 노동자와 근대적 관념으로서의 노동자가 혼재하는데, 이는 노동자가 갖는 양의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점은 총체적이고 일체화된 정치체로서의 노동자와 배제된 자들의 부분적이고 파편화된 다수로서의 노동자라는 노동자의 양의성이 갖는 간극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양상은 유길준이 전통과 근대의 혼재 속에서 지식의 교섭과 길항을 경험하며 자신의 지식 체계를 구축한 인물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유길준은 ‘경쟁’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에서 옛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것은 『논어』의 ‘팔일편’(八佾編)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는 ‘겸손’과 ‘양보’의 도를 아는 군자의 다툼에 관한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경쟁의 역량’이 가진 중요성을 말한다.³¹⁾ 그리고 ‘세계의 진보는 경쟁’에 있음을 설파한다. 유길준은 신지식으로서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여, 불가피한 경쟁을 할 때에는 힘을 과시하는 다툼이 아니라 예와 덕을 갖추고 형세를 살피는 방식을 강조한다. 이는 경쟁이나 진보 자체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경쟁과 진보의 방식과 태도를 문제삼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예의를 모르는 경쟁, 즉 제국주의와 식민화에 대한 비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외국사람과 교제하는 일」(外國사람과 交際하는 事)에서 일본, 중국, 영국, 미국사람이 다 외국 사람이며, 그들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더라도 근면, 정직, 성실함을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되 사람의 권리를 범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재래의 공맹사상을 통해 전

31) 유길준(1908), 「경쟁」, 앞의 책, 84쪽.

유한 사회진화론'이야말로 유길준이 조선에서 기획한 교육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문명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며 서양을 예로 들지만, 외국 사람을 상대화하여 식민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야기함으로써 분발을 촉구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 내용에는 조선인의 나태만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외국사람의 무분별한 욕심에 대한 인식과 비판도 개입되어 있다. 유길준은 독본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강조점을 붙여두는데, 가장 많은 강조점을 가진 다음의 글을 살펴보자.

천하만국이 서로 통하여 외국 사람이 물밀듯 오는 세상에 아무 노릇도 아니 하고 팔짱끼고 높이 앉아 콧노래나 부르거나 늦은 꿈에 깊이 들어 대낮으로 밤을 삼고 편히 노니 팔자 좋다 빈정거리 하는 말 내 집일도 못하거든 나라 일을 어찌 알까. 그럭저럭 되는 대로 이렇저렇 살아가면 외국사람 그저 있다. 셋별 같은 두 눈동자 휘휘 둘러 이리저리 살펴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보는 대로 욕심내며 닥치면 가져가니 그 장사의 하는 말 네 돈이 내 돈이다. 그 농군의 하는 말 네 땅이 내 땅이다. 그 장인의 하는 말 네 물건이 내 물건이다. 그 중에도 그 선비 하는 말을 들어보라. 네 지식이 얼마 되나. 켜켜 묵은 머리 때로 상투 아래 썩은 골이 배운다니 오죽하며 생각한들 무엇을 할까. 옛 사람의 찌꺼기는 이 세상에 쓸 데 없다. 새 학문을 닦지 아니하면 네 노릇은 남의 종 될 뿐이라 한다.

분발해야 한다. 동포들이 동심합력(同心合力) 이어차 이 나라를 일으키세. 살려거든 죽기를 무릅쓰자.³²⁾

32) 「분발」, 위의 책, 78-79쪽.

천하만국 “天下萬國이 서로 통하여 외국 외국 사람이 물밀듯 오는 세상에 아무 노릇도 아니 하고 팔짱끼고 높히 앉거니와 농 농 노릇도 아니 하고 편히 노니 팔자도 타 빈정거리 하는 말 내 집일도 못하거든 나라 일을 어찌 알까. 그럭저럭 되는 대로 이렇저렇 살아가면 외국사람 그저 있다. 셋별 같은 두 눈동자 휘휘 둘러 이리저리 살펴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보는 대로 욕심내며 닥치면 가져가니 그 장사의 하는 말 내 돈이 내 돈이다.”

이 글에서 ‘새 학문을 닦지 않으면 남의 종이 된다’는 구절은, 『경쟁연설』에서 “별서 얼마쯤 우리가 지고 안찌 아니 흐얏소 어서 정신 차리시오 우리도 남보다 잘흐야 봅시다”³³⁾라는 구절과 만나 노동자의 불안과 공포심을 자극하고, 분발을 촉구하는 효과를 낳는다. 당대 조선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일본인 노동자의 1/2~1/3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³⁴⁾는 점을 생각해보면, 노동자가 일본인에 대해 느꼈을 적대감이나 조선 노동자 사이의 집단 심리를 추측해볼 수 있다. 경쟁, 분발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사람이 ‘선비’에게 하는 말이나 ‘우리’와 ‘동심협력’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유길준의 목소리는 노동자뿐 아니라 전대의 지식인,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있기도 하다. 그는 자신이 강조했던 용기와 분발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조선인의 교육을 생각했던 것이다.

4. 노동자가 읽(지 않)는 교과서, 노동자를 읽은 교과서

유길준은 『노동야학독본』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3000부를 간행한 후 지속적으로 광고를 내지만, 이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³⁵⁾ 1908년 간행된 『노동야학독본』에는 ‘제1권’이라는 권수가 붙어 있다. 그

그동근의흐는말삼네쌍이내쌍이다그장색의흐는말삼네물건이내물건이다그중에도
그선배의흐는말삼을들어보소네디식이얼마되나켜켜목은머리세로상투아래씩은골
이배흔다니오족흐머생각흐달므엇홀고넷사람의헛거기논이세상에쓸데업다새학문
을닥지아니흐면네노릇은남의종될뿐이라흐나니다

분발홀지어다同胞들어同心合力이어차이나라를이리키세살라거든죽기를름릅쓰소”

33) 『경쟁연설』, 위의 책, 86쪽.

34) 강만길 외, 앞의 책, 186-193쪽.

35) 『노동교과발간』, 『대한매일신보』, 1909. 7. 25.

것은 저자인 유길준이 이후 1권에 이은 독본을 더 간행하려고 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는 독본의 판매와 독서 상황에 근거하여 차후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08년 6월에 간행된 『교육월보』가 야학에서 교과서로 채택될 정도로 널리 쓰인 것과 대조적이다.³⁶⁾ 당대 신문기사는 『교육월보』의 흥행 소식을 전하며, 조선민족의 반을 차지하는 ‘부인동포’와 조선의 80~90%를 차지하는 ‘노동사회’에 ‘보통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간행된 서적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한다.³⁷⁾ 이훈상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안겨준 유길준과 달리, 반일의 입장에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던 『교육월보』의 편집진, 잡지에 수록된 논문이 노동단체의 결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때문에 『교육월보』가 『노동야학독본』에 비해 노동야학의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은 것이라 진단한 바 있다.³⁸⁾

그 이외에도 원인을 찾아보면, 『노동야학독본』은 노동자들이 구입해 보기에 비싼 가격(35전)의 책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월간으로 발행되는 『교육월보』의 구독료가 15전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00년대 초 경부선을 건설하던 철도 노동자의 임금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4~50전, 광산 노동자의 임금은 지역에 따라 20~50전이였다. 당시 쌀값이 현미 1두에 최고 80전이었으므로 일당 40전이면 근근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농업노동자의 임금은 농번기 외에는 극히 저렴하고 고용의 기회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농업노동자의 생활은 극히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임금은 일당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월급이 아닌 일급의 형태는 노동에 따른 위험 부담률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안정적 생활

36) 「흥명기흥」(興明其興), 『황성신문』, 1909. 9. 7.

37) 「교육월보의 효력」, 『황성신문』, 1909. 4. 17.

38) 이훈상, 앞의 책, 751-762쪽.

을 불가능하게 해 노동조건을 한층 악화시키는 것이었다.³⁹⁾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들여 독본을 사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교육월보』측이 애초부터 잡지 광고에 의존하여 경영할 것을 천명하며 4000부를 찍어 전국에 배포했으며, 나중에는 독자들의 구독료가 수거되지 못해 경영난을 겪게 된다⁴⁰⁾는 점은 유길준의 독본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노동야학독본』이 독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또 다른 원인으로는, 비실용적인 내용과 난해성, 순응적 노동자상에 대한 강요 등을 들 수 있다.⁴¹⁾ 『노동야학독본』은 국문체의 사용을 위해 훈독을 시도하며, 민중을 의식한 글쓰기를 보여준다.⁴²⁾ 유길준은 글뿐 아니라 말과 행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배우기 쉬운 국문을 익히면 바른 행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

39) 강만길 외, 앞의 책, 186-193쪽.

40) 최기영(1990), 「구한말 『교육월보』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보』(3), 한국서지학회, 23-24쪽.

41) 배수찬, 앞의 논문, 603-604쪽; 이훈상, 앞의 책, 761-762쪽.

배수찬은 『노동야학독본』이 문맹에 가까운 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근대적 개념을 문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로, 실무를 가르쳐야 할 이들에게 노동이라는 새로운 근대적 추상어를 가르치는 이론 교육에 독본의 편집 방향이 잡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교육적 실패의 관점에서는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이 실패했는지 몰라도, 노동경제학적 내용과 노동 및 노동자의 성격과 자질에 대한 설명은 노동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시대적 지식이었다는 측면에서 그 내용상의 가치는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훈상은 노동자들이 사회로부터 차별받은 구조적 모순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 상하의 위계질서를 준수할 것을 강조한 내용을 들어 유길준의 독본이 노동자로부터 배척받게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노동(자)에 대한 독본의 내용이 갖는 시대적 가치와 한계를 지적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 도입한 다양한 서술방식의 체계와 지식의 교섭 및 경합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노동야학독본』의 정치, 문화적 의미를 밝히는 방식을 취한다.

42) 「서적원매광고」(書籍原賣廣告), 『황성신문』, 1909. 12. 14.

한 서점의 책 광고에는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도 자리하고 있는데, 학부의 검정과 내부인가를 끝냈다는 내용과 함께 제목 아래 조그만 글씨로 ‘순국문’(純國文)이라고 강조하는 말이 덧붙여 있다.

했다. 그리고 ‘한문(漢文)도 쓸 데 없고 일본문(日本文)도 쓸 데 없고 영국문(英國文)은 더군다나 쓸 데 없으니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우리나라의 국문(國文)이라야’⁴³⁾ 한다고 말함으로써 배움은 자국의 언어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독본의 중간에 「육조가」(六條歌), 「애국가」(愛國歌), 「노동가」(勞動歌)와 같이 4·4조의 노래를 삽입하여 앞에 서술한 내용을 정리한다. 이러한 기획은 독자가 리듬감 있는 짧은 형태의 가사로 읽기 쉽고, 암기하기 쉽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저자의 뜻을 담고 있다. 또한, 저자는 연설의 형태로 서술되는 「노동연설」1-5와 「연설에 대하는 답사」, 「경쟁연설」이라는 장을 마련하여 대화체로 노동의 중요성과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와 같은 부분 역시 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노동야학독본』은 노동자의 현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유길준에 의해 창출된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연설에 대하는 답사」의 내용을 살펴보자. 「노동연설」을 들은 노동자의 답사는 유길준의 계몽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노동자 교육에 힘쓰는 유길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유길준의 노동자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노동자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것인 셈이다.

우리가 노동은 하지만은 우리도 대한제국의 백성이니 백성되는 의무는 힘써야 할 것이며 대황제폐하의 신하이니 신하되는 충성은 다해야 할지니 그 도리는 다름 아니라 우리 하는 노릇을 잘 하기에 있다 합니다.

선생의 가르치시는 말씀이 간절하며 상쾌하여 마디마디 우리의 깊은 잠을 깨우며 우리의 묵은 병을 다스리니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기운을 일으키시니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간에 삭이어 잊지 아

43) 유길준, 「노동연설4」, 앞의 책, 46쪽.

니하는 중에 배우라 하시는 일과 자녀 가르치라 하시는 일과 먼 생각으로 준비하라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뿐 아니라 그 리해야 할 필요를 깨달았으니 우리 노동학회에서 선생의 말씀대로 하기를 의론하오니 좋은 방법을 많이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⁴⁴⁾

인용문의 앞에는 지식과 문견이 없어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노동자의 처지가 바람에 이는 잎사귀나 물새는 배, 어둔 밤에 비유되어 장황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문맹에 가까운 노동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빌린 유길준의 언어다. 이 글은 ‘우리가 노동은 하지만’과 ‘우리도 대한제국의 백성이니 백성 되는 의무는 힘써야 할 것’이라는 내용에서처럼 노동자에게 투영되었던 양의적 시선이 발화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유길준은 왜 이 글을 기획했을까. 이 글은 노동야학회에서 연설을 듣고, 공부하여 각성된 노동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러티브의 기획은 아직 교육받지 못한 노동자를 계몽하는 방식인 동시에 노동야학회를 알리는 방식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목소리로 노동자의 개화를 위해 교육하고 헌신하는 유길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기도 하다. 노동자의 현실과 그 현실에 근접하지 못한 유길준은 노동자의 목

44) 「연설에 대하는 답사」, 위의 책, 52-53쪽.

“우리가^{노동}勞動은 하지오만은우리도^{대한제국}大韓帝國의백성이온즉백성되는^{의무}義務는힘써야할
 지며^{대황제陛下}大皇帝陛下의신하이온즉신하되는^{충성}忠誠은다하야할지니그도리는달름아니라
 우리하는노릇을잘하기에잇다하압니다
 선생의가라치시는말삼이간절하며상패하야마대대우리의깊흔잠웁가시며우리
 의목은병을다사리사정신웁법나이시고괴운을이리키시니우리는마암에^간박으며肝에
 삭이어^넋忘지아니하는^중中에배호라하시는일과^{자녀}子女가라치라하시는일과^먼遠은생각으로
 준비하라하시는일에^대對하야우리가^{감사}感謝하올뿐아니오라그리하야^{필요}必要를깨달
 았사온즉우리^{노동학회}勞動學會에서선생의말삼대로하기를의론하오니도^{방법}훈方法을만히가라
 쳐주시기를바라압니다.”

소리로 지식인의 자의식을 표출하는 부자연스러움 속에서 노동자 교육을 시도했던 것이다.

『노동야학독본』은 문맹에 가까운 노동자들에게 근대의 개념을 설명하지만, 관련된 삽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노동자와 같은 민중에게 재미와 흥미를 줄 수 있는 이야기의 활용, 구체적인 지명이나 인물을 동원한 지식 등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양상은 유길준이 『노동야학독본』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삽화나 일화로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들을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길준은 독본에서 근면, 정직, 성실, 의무, 권리와 같은 개념을 설명한다. 이 개념들은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내용이며, 국민으로서 노동자의 외연과 내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유길준은 이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와 ‘예시’의 방법을 쓰며, 그것은 중심 개념 및 그것과 대립관계에 놓인 개념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명의 방식은 성공한 노동자인 동시에 선량한 국민상을 만드는 방향으로 수렴된다.

근대적 개념의 설명 체계 속에서 노동자는 근면하거나 정직하지 못하면 ‘국가의 짐’, ‘사회의 도적’⁴⁵⁾이 되고, 노동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착한 백성’⁴⁶⁾이 되는 극단적 상황에 놓여 있다. 유길준은 착한 백성과 개화한 노동자가 갖춰야 할 덕목들을 말하고 있지만, 경성일보사에서 간행된 이 독본의 내용은 기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충량한 신민을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를 안고 있다. 그 점은 이 책이 노동자를 위한 독본이지만 직업 수행에 활용될 과학적 지식,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률적 지식이 아예 소거되고 윤리적 덕목이 강조되어 있는 점과 관련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독본에는 대한제국의 법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

45) 『노동연설3』, 위의 책, 45쪽.

46) 『국민되는 의무』, 위의 책, 56쪽.

어 있기는 하나, ‘국민되는 의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률명령(法律命令)에 복종(服從)하는 일”⁴⁷⁾을 강조하기 위한 전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양상은 식민지 조선에서 강조된 ‘지식의 위계와 절합’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독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노동야학독본』이 국어와 수신의 절합을 보인다면, 남궁억이나 일본 지식인의 야학독본은 국어와 수신, 과학, 산술 등 다양한 지식의 병렬적 활용을 보여준다. 고다이 시게루의 『청년야학독본』이 ‘재미와 실용’과 거리가 먼 교과서의 폐해를 지적하고, “즐겁게 독서하는 동안에 유익한 지식과 교훈을 얻는 것에 주의하여”⁴⁸⁾ 간행된 교과서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유길준의 교과서가 가진 한계를 알 수 있다. 그 점은 남궁억의 『교육월보』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이 잡지는 보통지식을 지향하며, “노동자와 학교연한 외 동포”(勞働及學校年限外同胞)스지 학식을 얻게 하고자, 순국문으로 간명하고 쉽게 간행한 점에서는 유길준의 독본과 비슷한 지점에 놓여 있다. 그러나 남궁억은 여기서 더 나아가 “실지사업(實地事業)을 진행”하기 어렵지 않게 내용을 구성하고 서술하기 위해 노력한다.

근일 시국의 풍조가 날로 변화하므로 국민의 사상이 차츰 열리니 학교가 설립된 것이 곳곳에 보이고 교과서적이 점차 발행되어 이제 막 한창인 모양이 있으나 일반국민에게 보통교육을 실시함은 아직 이니 근일에 이르러 각처에 노동학교가 잇달아 흥하니 이는 보통개명(普通開明)의 장본이니 어찌 진실로 찬하(攢賀)하지 않으랴. 그러나 그 교과가 간명하고 알기 쉬운 국문으로 저술된 서적이 없으므로 창졸간 번역하고 가르치는 것이 오직 형세 급함을 탄식함이 있을 뿐이라 또한 완전한 교과가 되지 못할 지로다. 이에 사회유지(社

47) 위의 글, 55쪽.

48) 小谷重(1911), 『青年夜學讀本』, 金港堂書籍株式會社, 2쪽.

會有志)가 교육보급의 방침을 연구하여 교육월보(教育月報)를 발행하는데 무릇 동국역사(凡東國歷史)와 대한지지(大韓地誌)와 만국역사(萬國歷史)와 만국지지(萬國地誌)와 산술(算術), 물리학(物理學), 위생론(衛生論), 가정요결(家庭要訣), 한문초학(漢文初學) 등을 모두 순국문으로 편집간행하니 그 읽기 쉽고 깨닫기 쉬운 방법(方法)이 부인여자(婦人女子)와 농상공사회(農商工社會)와 초동목수(樵童牧豎)라도 호수에 따라 책을 읽으면 삼사 개월을 지나지 않아 그 학리(學理)를 해득하여 실지사업(實地事業)을 진행하기 어렵지 않을지니 이 어찌 천하의 훌륭한 결정이 아니리오.

그러므로 이 월보가 발달하는 날이면 우리 대한민족이 모두 유식한 학자가 되는 날이니 이 목적에 도달하면 우리 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오 우리 종족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오 문명한 민족과 동등자격을 점유할 수 있을지니 오직 우리 동포는 이점에 주의하여 혹 노동의 틈과 침식(寢息)의 여유와 배와 수레 가운데에 있으면 반드시 이 월보를 읽되 학리(學理)를 연구하여 지식을 넓게 깨우치고 국성(國性)을 배양하여 의무를 힘써 행하기로 충분히 힘써 피할지어다.⁴⁹⁾

49) 「교육월보」, 「황성신문」, 1908. 7. 1.

“挽回時局的風潮가 日劇함으로 國民의 思想이 漸開함니 於是乎學校設立이 隨處相望함고 教科書籍이 逐漸發行함야 方興未艾의 象이 有함나 一般國民에게 普通教育을 施함은 未及이러니 近日에 至함야 各處에 勞動學校가 相繼而興함니 此는 普通開明의 張本이니 豈不誠贊賀萬萬哉아 然其教科가 簡明易知함 國文으로 著述함 書籍이 無함으로 倉猝間翻譯而教授함는 것이 但窘急의 嘆이 有함뿐 不是라호함 完全함 教科가되지못함지리다 於是에 社會有志가 教育普及의 方針을 研究함야 教育月報를 發行함는디 凡東國歷史와 大韓地誌와 萬國歷史와 萬國地誌와 算術, 物理學, 衛生論, 家庭要訣, 漢文初學等을 皆純國文으로 編輯印行함니 其易讀易解함 方法이 婦人女子와 農商工社會와 樵童牧豎라도 逐號閱讀함면 三四冊을 不過함야 其學理를 解得함야 實地事業을 進行함기가 不難함지니 此엇지 天下의 妙訣이아니리오 然則此報가 發達함는 日이면 我大韓民族이 舉皆有識함 學者가되는 日이니 此目的에 得達함면 吾의 國家를 可以維持함것시오 吾의 種族을 可以保全함것시오 文明함 民族과 同等資格을 可以占有함지니 惟我同胞는 注意於此함야 或勞動의 暇와 寢息의 餘와 舟車의 中에 在함야만다시 此報를 閱讀함되 學李를 研究함야 知

“동국역사(東國歷史)와 대한지지(大韓地誌), 만국역사(萬國歷史)와 만국지지(萬國地誌), 산술(算術), 물리학(物理學), 위생론(衛生論), 가정요결(家庭要訣), 한문초학(漢文初學) 등(等)”을 모두 순국문으로 편집 인쇄한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월보』는 다양한 지식을 섭렵한 종합 교과서의 형태를 띤다. 1909년 4월 『교육월보의 효력』이라는 신문 기사를 보면, 제 10호부터는 ‘농업요설’(農業要說)과 ‘형법대요’(刑法大要)가 잡지의 내용에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신 강의록의 형태를 도모하고 있었던 이 잡지는 노동자들에게 매달 최신의 유용한 지식을 학습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월보』는 제 2호에 『노동사회에 권고함』이라는 글에서 서양각국의 노동사회의 형편을 말하며, “노동회사의 조직”과 “동맹과공”에 대해 소개하기도 한다. 『노동야학독본』이 애국심을 중심에 두고 노동자 단결과 협동을 언급하거나, 외국사람이 사람의 권리를 범하는 일을 허락지 말 것을 당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에 비교할 때, 『교육월보』의 구성이 조선 노동자의 주체성이나 권익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길준은 개인, 자유, 의무, 권리, 평등, 사회, 국가 등의 개념을 통해 노동자를 설명하고, 결국 ‘사람’, ‘사랑’, ‘도덕’ 등을 말함으로써 근대적 차원의 인간 이해의 방식을 보여준다. 노동자가 노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를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은 분명 조선사회에 노동자의 개념을 확정하고, 세분화된 노동의 가치를 재해석하는 데 일조한다. 그러나 유길준은 상하계급과 빈천의 구별은 질서유지를 위한 자연의 도리라는 내용을 통해 노동자의 자기갱생과 사회변혁의 욕망을 차단하는 모순을 드러낸다.

묻는다. 노동하는 동포들은 어찌하여 아랫사람 되었는가. 재주 없고 천량 없어 사느라고 되었으니 이미 아랫사람이 되었거든 아랫사람 되는 도리를 지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법이 허락지 않아 질서를 문란케 하는 죄인 된다. 질서를 지키어 위아래가 조화한 후에야 국권회복이 될 것이다.⁵⁰⁾

인용문에서 노동자는 아랫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법에 의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죄인이 된다. 이때, 죄인은 곧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존재를 의미한다. 유길준은 위아래의 조화로 표현했지만, 그것은 상하등의 위계이다. 상하귀천의 위계를 조화나 질서로 표현하고, 이를 국권회복의 원동력으로 가르치는 논리는 국권상실에 대한 불안 속에서 대중을 통합하기 위한 논리이기도 하다. 『노동야학독본』에 내재한 이와 같은 논리적 상층은 개화기의 시대적 사명을 한 몸에 지녔던, 또 스스로 그렇다고 믿었던 지식인의 내적 모순을 드러내기도 한다.

유길준은 국가의 발전과 독립을 향한 노동자의 문명화를 계몽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그것을 위해 근면, 노력 등 인간 의지의 활성화를 계몽의 수단으로 취한다. 그리고 그는 새 학문을 최상위 개념으로 내세우면서 신지식과 인간의 본분 사이의 일치 가능성을 시험한다. 이 때문에 사람의 도리, 사람의 자격과 같이 인간적인 것에 방향을 잡고 있는 유길준의 계몽은 보편적이며 추상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는 개인의 인간성, 즉 사람됨의 실현으로서의 계몽이 개인 외적인 사회 상황과 충돌할 때 생기는 모순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인간으로서 노동자의 본분과 국민

50) 유길준, 「질서」, 앞의 책, 81쪽.

“뭇노라로동하는 동포들은 어찌하여 아랫사람 되었는고 재주 없고 천량 업서 사느라고 되야시니 이의 아랫사람이 되었거든 아랫사람 되는 도리를 지킬지어다 그러치 아니 하면 나라의 법이 허락지 아니 하야 秩序를紊亂 하는 罪人 되나니 秩序를遵守 上下가 和 혼
 然後에야 國權 회복이 될지니라.”

으로서 노동자의 본분을 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그 결과 계급과 직업에 구속되어 제한되고 있는 국민 계몽과 무제한적인 인간 계몽을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노동자 계몽을 다만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각자의 지위에 합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실현시켜 나가는 점진적 과정으로 보았던 것이다.

당시 노동야학의 성행은 노동자들이 지식인들과 관계를 맺고 교육을 매개로 자신의 이익과 국가의 운명을 합치시켜 이해하려 한 새로운 노력⁵¹⁾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인간의 도리,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들보다 노동자들이 단합하여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는 방법, 일상생활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이 아니었을까. 유길준이 노동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계몽과 감화의 방식은 누구보다 해외체험이 많았던 그가 경험했던 세계 속 노동자들의 생활,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고 있는 자유와 평등, 독립의 실질적 사례들이었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 계급이 경제적 구성체의 한정된 범주로부터 빠져나와 스스로 사회적 문화적 구성체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노동야학독본』에서 사람과 국민을 연결하기 위해 동원된 ‘노동’과 ‘지식’은 결국 현실의 긴박함과 거리를 둔 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 속에서 노동자를 여전히 계몽하고 구제해야 할 타자로 남겨둔다. 그러나 유길준이 1856년에 태어나 50세가 넘는 나이에 『노동야학독본』을 썼다는 세대적 감각을 생각해볼 때, 독본이 가진 한계는 그 노동지식의 체계와 선진성을 넘어서기 어렵다. 또한, ‘노동자’나 ‘야학’처럼 교육의 중심으로부터 배제된 대상을 계몽의 중심에 두고 사유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일찍이 없었다는 점, 이 독본이 시작(1권)에서 끝났다는 점을

51) 이훈상, 앞의 책, 754쪽.

감안한다면 그 한계를 사료적 가치보다 부각시키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5. 결론

지금까지 『노동야학독본』의 분석을 통해 유길준이 기획했던 노동자 교육의 내용과 논리 및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노동야학독본』은 개화기 노동 관련 지식이 구성되고 그것이 국가담론과 결합되는 방식을 드러내는 자료이다. 독본이 천명하는 보통지식의 이상 속에는 국가의 기본으로서 노동자가 갖는 정치성이 개입되어 있지만 그것은 역으로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노동자의 위치를 환기한다.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양의성은 조선에서 노동자의 개념이 확립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시선, 특히 지식인의 시선을 드러낸다. 조선인의 선비화를 목표로 삼았던 흥사단의 시작점에 존재하는 유길준의 교육활동은 노동자 교육과 교과서 발간으로 구체화되지만, 그것은 노동자를 중심에 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개화하는 지식인을 중심에 둔 형태를 띤다. 노동자를 노동의 주체이면서 학습의 주체로 인정한 상태에서 발간된 남궁억의 『교육월보』, 일본의 호리에 히데오와 고다이 시게루의 야학독본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노동야학독본』이 가진 특성과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그의 독본은 개인-사회-국가-세계의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강조하다가도 귀천의 구별과 상하의 위계에 대한 순응이 질서를 위한 자연의 도리임을 말함으로써 모순을 드러내기도 한다. 유길준은 노동자의 자기갱생과 사회변혁의 욕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노동자 교육을 도모했던 것이다.

독본에 드러난 논리상의 모순은 노동자에 대한 그의 교육이 일정 부분

사회진화론과 같은 신지식을 적용하되, 『맹자』, 『논어』와 같은 전통사상에 의한 변용을 거친 데 기인한다. 또한, 그것은 개인의 인간성, 즉 사립됨의 실현으로서의 계몽이 개인 외적인 사회 상황과 충돌할 때 생기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유길준은 인간으로서 노동자의 본분과 국민으로서 노동자의 본분을 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그 결과 계급과 직업에 구속된 국민 계몽과 무제한적인 인간 계몽을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을 드러낸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과 거리를 둔 채, 인간의 본분을 노동자가 습득해야 할 신지식으로 대치시킨 독본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식인의 입장에서 서술된 독본은 적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문맹에 가까운 지적 수준을 헤아리지 못하여 비싸고 난해한 교과서의 형태를 띤다. 이 때문에 『노동야학독본』은 노동자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 이점은 재미와 실용을 추구했던 일본의 야학독본이 재판을 거듭하며 내용상의 변화를 추구했던 사례,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다루는 동시에 노동조합이나 동맹파업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생각하게 했던 『교육월보』가 야학에서 교과서로 활용되었던 사례와 비교해볼 수 있다. 유길준의 독본은 노동자를 계몽하는 지식인의 관점과 권위를 강조함으로써 노동자가 자유로운 주체로서 교육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 독본이 근대 초기 노동야학과 노동자 교육의 시작점에 놓여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둘 때, 『노동야학독본』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근대적 가치와 개념을 부각했으며, 산업인력인 노동자 교육을 근대의 국가 이념 속에서 해석하고 실천으로 옮긴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교육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보통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록 순국문의 사용과 지식의 노래화 및 연설화, 유교사상을 통한 신지식의 전유, 비유·예시·분류·비교 등의 설명 방식을 도입한 자료로서 개화기 노동자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 계몽에 내재한 국가 이데올로기와 지식인의 자의식이 결합된 양상, 노동자 교육을 둘러싼 지식의 절합과 노동자의 지식 선택의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언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독본이 갖는 의미와 한계는, 구한말 조선의 지식문화사 안에서 교육제도의 외부에 놓인 노동자와 야학을 전면에 내세워 하나의 지식체계가 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의도와 의지 안에 함축된 것이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유길준(1908), 『노동야학독본』, 경성일보사.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 편(1971), 『유길준전서』 I-II, 일조각.
堀江秀雄(1905), 『夜學讀本』, 博文館.
小谷重(1911), 『青年夜學讀本』, 金港堂書籍株式會社.

(2) 논문 및 단행본

- 강만길 외(2004), 『한국노동운동사』 1, 지식마당.
구자황(2004), 『독본을 통해 본 근대적 텍스트의 형성과 변화』, 『상허학보』 13, 상허학회.
김종진(2004), 『개화기 이후 독본 교과서에 나타난 노동 담론의 변모 양상』, 『한국어문학연구』 4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김현주(2008), 『‘노동(자)’, 그 해석과 배치의 역사』,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 깊은샘.
노명우(2005), 『계몽의 변증법』, 살림.
박주원(2006), 『1900년대 초반 단행본과 교과서 텍스트에 나타난 사회 담론의 특성』,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배수찬(2006), 『‘노동야학독본’의 시대적 성격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양재만(2000), 『대한제국기 유길준의 국가관과 교육방침』,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송(2008), 『유길준의 『서유견문』의 교육론 구상 전사(前史)』, 『교육사연구』 18권 2호, 한국교육사학회.
이훈상(1994), 『구한말 노동야학의 성행과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 『두계

이병도 박사 구순기념논총』, 지식산업사.

정용화(2004),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 한국』, 문학과 지성사.

최기영(1990), 「구한말 『교육월보』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보』(3), 한국서지학회.

Adorno, Theodor W. & Horkheimer, Max(2001),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 지성사.

Agamben, Giorgio(2009), 김상운·양창렬 역, 『목적 없는 수단』, 난장.

Huddart, David(2011), 조만성 역, 『호미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앨피.

원고 접수일: 2013년 5월 1일

심사 완료일: 2013년 5월 24일

계재 확정일: 2013년 5월 28일

ABSTRACT

Articulation of Knowledge and Politics of Enlightenment

- Related with Laborers' Education -

Jo, Yunjeong

By considering *Nodongyahakdokbon*(『勞動夜學讀本』), this paper reveals the double meaning of the concept of labor inherent in enlightenment logic and the meaning and the limits of the sense of identity of the intellectual from a political and cultural viewpoint. There are, at the same time, two different kinds of concepts about laborers in *Nodongyahakdokbon* (『勞動夜學讀本』). One is a laborer as a member of the Chosun nation and another is a laborer as a neglected class of people. This occurred as a result of the situation under which nation ideology had been combined with the concept of labor introduced and settled in the age of the time of enlightenment.

This paper compares *Nodongyahakdokbon* with Namgung Ok's *Gyoyukwolbo*(『教育月報』) and *Yagakdokuhon*, by Horie Hideo and Godai Sigeru, which were published around the same time. This study also deals with the acceptance of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and the thought of Confucius and Mencius which influenced the publication of the textbook of Yu Giljun. In addition, this work finds as the root cause of the insufficient response of the laborers towards *Nodongyahakdokbon* in its high

price, unpractical and difficult contents, and coercion towards the figure of adaptive labor. In this aspect, *Nodongyahakdokbon* acts as important data in exposing the concept and value of labor and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 of laborers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But it had an obvious limit in that it could not envisage the possibility of the independent educational participation of laborers or the making of the culture of the laborers.

